



박영선

북방농업연구소 소장 (朴英善)

馬乘 박영선(75) 북방농업연구소 소장은 우 리 선진 농업과학기술의 전령사 역할로 제2의 삶을 살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일평생 정직·성실함으로 청렴한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는 박 소장을 커다란 북방지도가 펼쳐져 있는 그의 연구실에서 만나보았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선후배님들과 같이 어울려 건강도 유지하고 북방농업에 관한 조사연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임 하신지가 꽤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북방농업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신데 이곳에서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군요.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 정년퇴임을 하고 이곳 북방농업연구소에 들어와 총무이사를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소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극동 러시아 및 중국의 북방지역을 주축으로 한 북방농업의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 관련단체 및 기업체로부터의 위탁용역 연구와 북방농업연구지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5년 가까이 농촌진흥청에서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여러 어려움에 봉착한 오늘의 농업 농촌을 보시는 감회가 특별하실 것 같습니다만..

네, 감회가 없을 리가 없겠지요. 가난하고 먹거리가 부족했던 60년대를 지나 70년대에는 농

“ 무엇보다 농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

색혁명으로 주곡의 자급달성을 이룩하였고 연중 신선한 채소와 과실을 생산하여 우리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한 농촌진흥 가족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 뿌듯하고 감회가 특별합니다.

과학영농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데 보람 있고 기억에 남는 사례를 드신다면?

1964년에 수도채 규산 함량에 관한 논문을 국내 처음으로 발표하였고 1963년부터 1969년까지는 UN 특별기금에 의한 토양비옥도사업에 참여하여 토양개량법 확립, 토양검정법 개발, 식물 영양생리 연구 등에 매진하였습니다. 또 농약연구소 농약화학과장 때에는 도열병과 벼멸구 동시 방제가 가능한 혼합제와 미립제 및 저비산 분제를 개발, 사용토록 한바 있으며 농약연구소장 시에는 품목고시 시험 방법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농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데 매진했던 일 등 대소의 노력들이 지금도 기억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농약관련 보직을 두루 섭렵 하셨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셨나요?

신설기관인 농약연구소 재직시 직원분들과 합심하여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인력은 물론 시험분석 기기, 특히 독성시험에 관한 연구시설과 기자재가 크게 부족하여 신농약 개발이나 제형 연구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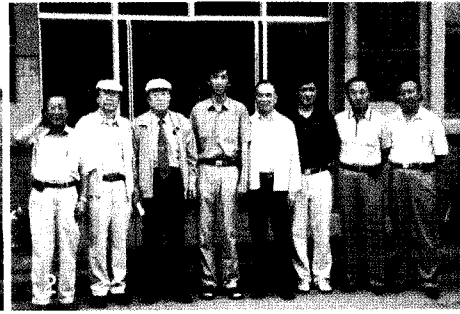
습니다. 그리고 농약의 중요성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인간과 생태환경에 피해만을 준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던 일부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일, 농약 사용자로부터 약효저하와 약해 발생에 대한 빈번한 불평과 불신을 해결하는 일들이 쉽지 않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농약개발 전망, 농약학, 농약잔류시험법, 농약연구 등 주옥같은 논문과 저서를 내시는 공로로 훈장을 받으시기도 하셨는데 당시를 회고하신다면?

1981년 정부기구 축소라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농약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일하게 농약 연구소는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당시 농약성분 분석을 위해 일본 출장 중 휴대한 농약 유·액제 시료가 공항 검색대에서 발견되는 난감한 상황에서 마음 졸였던 일, 미국산 자몽 중 다미노자이드 잔류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차이로 시비가 빚어졌던 일, 논잡초약 퀴크로락의 후작물 약해 발생으로 함유품목의 취소 또는 계속 사용에 대한 최종 판단, 그리고 매년 국정감사시 등장했던 농약의 독성과 안전사용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와 증인 채택 등 농약연구 수행과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직 시 보다는 농약에 관한 인식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로서 고견을 주신다면?

1. 국동 러시아 연해주 시바코프키농장 시험 포장에서 벼 수확기 생육조사를 마치고
2. 농업 현지조사 연구를 위해 중국 길림성 농업과학원 토양비료연구소를 방문하여
3. 농업 현지조사 연구를 위해 중국 절강성 태주시 농업과학원 원장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섭취하고자 하는 바람은 특정인의 몫이 아닐 것입니다. 농약의 개발이나 사용법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이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정보와 지식을 총 동원하여 독성 잔류성은 물론 새로운 사용법 등을 연구하고 있으므로 막연한 불안감은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농약산업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며 미래의 농약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나라 농약산업은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약효는 우수하지만 독성이 강하고 잔류성이 짧지 않은 농약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약은 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농약은 개발이나 관리 등 안전성 면에서 가일층 보완 발전되어 매우 안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작물 보호약으로서 앞으로도 독성이 낮고 잔류성도 짧으면서 저약량 고효율성이며 병해충의 방제효과가 높은 환경친화형 농약 개발이 바람직합니다. 생물농약 개발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런 즈음 농자재, 특히 작물보호제의 역할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지요?

당연히 이런 때일수록 농자재 특히 작물보호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약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인 병해충과 잡초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는 필수 농자재입니다. 농업의 생산성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농약사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없었던 새로운 병해충이나 잡초의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접하시는 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작물보호분야 연구는 품종 육종분야 연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유기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가격이 비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반면 관행농산물은 사실과 무관하게 의심받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생산한 농산물은 안전하므로 마음놓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Y